

발행 [출판]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찬미받으소서.

제1독서 | 잠언 8,22-31

화답송 | 시편 8,4-5,6-7,8-9(◎ 2ㄱㄴ)

◎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 우러러 당신 손가락으로 빚으신 하늘하며,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 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

○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나이다. ◎

○ 저 모든 양 떼와 소 떼, 들짐승하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

제2독서 | 로마 5,1-5

복음환송 | 묵시 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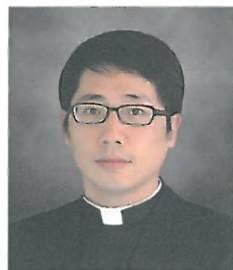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복음 | 요한 16,12-15

영성체송 | 갈라 4,6 참조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두려움'에 관한 단상(斷想)

종종 우리 안에서 '두려움'의 감정을 발견합니다. 건강 염려로 인한 두려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상대에게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자리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타인과 관계가 훼손될 것에 대한 두려움 등 우리는 다양한 모습의 두려움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사랑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아, 성부, 성자, 성령의 친교와 일치,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직면한 두려움의 현실에 비추어 돌아봅니다.

제1독서(잠언 8,22-31)는 특별히 '하느님의 지혜'를 의인화하여 표현합니다. "주님께서서는 그 옛날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당신의 첫 작품으로 나를 지으셨다. ... 나는 그분 곁에서 사랑받는 아이였다. 나는 날마다 그분께 즐거움이었고 언제나 그분 앞에서 뛰놀았다. 나는 그분께서 지으신 땅 위에서 뛰놀며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잠언 8,22,30-31) 구약성경 잠언서에 묘사된 이 '하느님의 지혜'는 나중에 신약성경 요한복음서의 '로고스 찬가'에 이르러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재해석되어 표현됩니다.

제2독서(로마 5,1-5)는 바오로가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유다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신앙 공동체를 향해, 바오로는 성부, 성자, 성령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역설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 5,1,5)

복음(요한 16,12-15)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요한 16,13,15)

일상에서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은 어쩌면 내 안에 '사랑 받고 있다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싹트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성부 하느님,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성자 그리스도,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위로자 성령.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1요한 4,18)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내면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이 샘물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 깊숙한 곳에 있어서, 자주 꺼내 보지 않아서, 마르지 않는 그 사랑의 샘물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일상 속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두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금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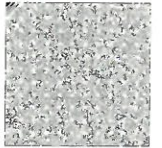
프랑스 파리 사크레피르 대성당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요한 16,13)"

파리 '사크레피르 대성당'에 들어가면 모자이크 천장화가 맞이합니다. 너무 생생하여 그분께서 직접 팔을 벌리고 계시는 듯합니다. 시작이요 마침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천하시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지혜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함께하시는 주님 찬미 받으소서!

김문숙 요셉파나 | 가톨릭사진가회





김혜영 사비나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거룩한 부담

아들 한빛(프란치스코)이 떠난 후 시간도 함께 멈췄습니다. 한빛을 가슴에 묻지 않고 부활시켜 함께 살아가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매일 무너집니다. 평범했던 한 가정에 닥친 파괴적 슬픔은 어떠한 것으로도 메꿔질 수 없었고,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신비스러웠습니다. 고마운 이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를 일으켜주고 남은 삶을 살아내도록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운명’이란 말도 있지만 ‘운명에 맞서다’라는 말도 있다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예수회의 ‘하늘마음(상실의 아픔과 슬픔 극복을 위한 자녀 사별자 모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가족들을 만나 위안을 얻었고, 혼자만의 아픔이 아픔을 알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공감하면서 힘을 얻었고, 하느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 견디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가족, 친구들이 함께 치유하고 봉헌하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슬픔 속 희망 찾기’도 있습니다. 아들의 선택은 돌이킬 수도 없고,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살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던 아들이 죽음의 흔적보다는 ‘희망의 언어’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엄마의 인간됨을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홀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을 건네며 소리 내어 울 수 있는 안전지대가 되어 줍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후원회원 ‘한빛의 친구’들도 저에게는 한 줄기 빛입니다. 그들은 한빛센터 후원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초대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지평을 넓혀주는 것’이라며 아들의 빈 자리를 채워줍니다. 피디(PD)가 되어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카메라 뒤에도 사람이 있다.”며 화려한 스크린 뒤 열악한 노동을

고민했고, 최소한 사람이 사람에게 가혹해서는 안 된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고민했던 한빛에게 주님이 이어 준 인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고 억지 썼는데, 주님은 토마스의 신앙 고백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처럼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끊임없이 저를 이끌어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이사 43,19) 이 말씀은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 새 일이 완성될 것임을 희망하며 붙잡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은혜, ‘거룩한 부담’으로 기꺼이 받겠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 무엇이 바뀌었는가를 주시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희망의 싹을 틔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남은 삶은 ‘한빛 엄마’로 살면서 하나하나 갚아 나가겠습니다. 한빛을 기억하며 한빛이 살아가고 싶어 했던 날들을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한빛 묵상

이-버-기-1-제-서
기-지-고-계-신-것-은
모-든-나-의-것-이-도-나
Jm 16. 15



류상애 아네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21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까요?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가능할까요? 성부께서 모든 인간의 구원을 바라셔서 성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느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당신 뜻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2사도 안에, 베드로 사도 위에! 예수님의 파견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사도들은 교회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는 자신이 먼저(=우선적 혹은 배타적) 구원 대상이 되고, 동시에 모든 이를 위한(=포괄적) 구원의 도구가 되는 '성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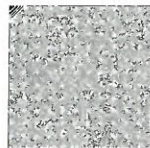
그리스도교 이외에서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네! 교회 이외에도 구원받을 방법이 있고, 교회 밖에도 구원 '가능성'이 있다고 가톨릭교회는 답합니다. 타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면, 왜 선교를 하고, 왜 미사에 나가야 할까요?

가톨릭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며, 올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의 보증과 확증이 주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교회의 성사들을 통해 은총을 얻고, 구원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 앞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

예수님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마르 16,16 참조) 즉 세례 여부만으로 단죄가 결정되지 않을 듯합니다. 하느님은 아직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잊지 않고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십니다.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모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고 양심의 명령을 통하여 알게 된 하느님의 뜻을 은총의 영향 아래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제2차 바티칸공의회 「교회헌장」 16항) 복음과 교회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될 수 있는가에 대해 가톨릭교회는 "하느님만이 아시는 방법으로"(「선교교령」 7항)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느님만이 아시는 방법'은 오직 하느님만 아시는 방법이라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구원 은총은 타종교와 문화 안에도 존재한다는 것이 가톨릭교회 공식 입장입니다.(「교회헌장」 16항, 「비그리스도인 선언」 2항)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extra ecclesiam nulla salus)는 말은 초기 그리스도교 교세 확장 때 교회 중요성 강조와 교회 분열에 대한 경고, 교회 일치 강조가 목적이었습니다. 교회 내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분명 구원이 있음을 강조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날 가톨릭교회는 더 이상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세에 '교회 밖에 은총이 없다.'고 주장(=안세니즘)했던 극단적 사람들을 이단으로 단죄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타종교의 구원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진리의 위계(位階)'에 대해 명확히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교에 주어진 구원 은총과 다른 종교에 주어진 것이 같지 않고, 진리와 구원에는 '위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지닌 '구원의 보증과 확증', 타종교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가능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보증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모의 사랑에 목말랐던 어른아이 르우벤



허영엽 마티아 신부 |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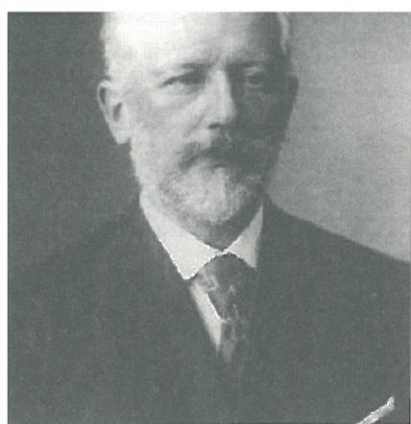
야곱의 장남 르우벤은 부모에게서 첫 번째로 태어난 아기로 장자권을 계승할 장자였기에 당연히 부모와 가족들의 환영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장인 라반에게 속아서 어쩔 수 없이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와 결혼합니다. 레아는 예쁜 동생 라헬과 비교되면서 어릴 때부터 자연히 자매간의 경쟁의식과 콤플렉스를 갖고 성장했을 것입니다. 사촌 야곱이 라헬만 좋아했을 때, 레아는 여성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질투심도 느꼈을 것은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날밤을 치른 대상이 언니 레아였다는 사실에 야곱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물론 시대와 문화가 다르지만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일단 결혼한 레아는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임신하게 됩니다. 그녀의 임신은 라헬과 맺는 경쟁 구도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근동 지방에서 자녀, 특히 아들은 어머니의 가족 숫자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어머니 자신의 사회적 위치까지 결정하는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르우벤이 레아의 태중에 있을 때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한편 마음으로 불안했을 것입니다.

“레아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아주셨구나.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하면서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다.”(창세 29,32)

레아가 안도하는 모습에서 연민마저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랑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인간이 마음대로, 생각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첫눈에 반했던 라헬을 사실 평생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레아가 불쌍하고 동정심이 가지만 사랑은 전혀 다른 색

을 지닙니다. 탄생 이후에도 르우벤은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흠뻑 받지 못하며 자랐을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빨리 어른처럼 행동하려는 습관이 들고 이른바 가족의 인정을 받으려고 장남 콤플렉스에 빠질 가능성도 큼니다. 그런데 레아는 남편 야곱의 마음이 여전히 라헬에게 있음을 알고 계속해서 아이를 원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했던 레아는 르우벤 아래 세 명의 남동생을 연년생으로 낳습니다. 어린 르우벤은 한살이 채 되기도 전에 동생에게 엄마의 젖을 빼앗긴 채 젖먹이 동생들이 계속 태어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엄마의 젖을 편안히 먹어보지 못한 아이의 심리상태는 박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아이 르우벤은 어머니에게 사랑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르우벤은 밖에 나갔다가 들에서 임신에 좋은 합환채를 발견하고,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줍니다.(창세 30,14)

르우벤은 어린 나이부터 내적으로는 장남의 책임감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동생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해서 동생 요셉을 죽이지 않고 이집트로 팔아버린 사건이나(창세 37장) 양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로 간 이야기에서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여 용감하게 막내 베나민을 이집트로 데리고 간 사건으로 잘 나타납니다.(창세 42장) 그는 평생 동생들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했으면서도 아버지 야곱의 칭찬과 격려에 목말랐고 다른 형제들의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장남으로 가족들을 책임지면서도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르우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의 따뜻한 인정과 격려일 것입니다.



차이콥스키(1840-1893) | 사진출처: OPERA 366



차이콥스키 피아노 삼중주곡 가단조 '한 위대한 예술가를 추억하며...'

임주빈 모니카 | KBS프로듀서

가톨릭 신앙에서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위격(Persona)을 갖고 있으나 실체(Natura, 본성)로는 한 분이심을 말한다면, 음악에서 '삼중주(trio)'는 세 악기가 자기의 역할과 색깔을 가진 채 한 곡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삼중주의 가장 대표적인 악기 편성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이뤄지는 '피아노 삼중주'로, 고전주의 시대 하이든을 필두로 수많은 작곡가가 명곡을 남겼습니다.

러시아 작곡가 차이콥스키(Pyotr Ilyich Tchaikovsky, 1840-1893)는 평생 딱 한 곡의 피아노 삼중주곡을 썼는데, 피아노 삼중주의 명곡 목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곡입니다.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러울법한 피아노 삼중주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슬픔에 가득 찬 무거운 분위기의 대곡(大曲)입니다. 차이콥스키는 자신의 후원자 폰 메크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피아노 삼중주의 악기 조합은 참기 어렵다고 한 바 있었고, 이제 처음 피아노 삼중주곡을 작곡했지만 행여 교향적 작품을 피아노 삼중주로 편곡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닌지 우려하기도 했죠.

이런 모험적 시도의 배경에는 한 작곡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곡의 악보에 '한 위대한 예술가를 추억하며...'라는 글이 쓰여 있었는데, 그 '위대한 예술가'는 바로 모스크바 음악원 초대 원장이었으며 피아니스트였던 니콜라이 루빈스타인(Nikolay Rubinstein, 1835~1881, 러시아)을 말합니다. 당시 음악계에 영향력 있는 주요 인사였던 루빈스타인은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에 가혹한 평가를 내려 감수성 예민한 차이콥스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던 사람이죠. 하지만 뒤늦게 그 작품의 진가를 인정하고 파리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이 곡을 연주해서 호평을 얻어낸 뛰어난 피아니스

트였습니다. 루빈스타인이 1881년 3월 세상을 떠나자, 차이콥스키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피아노의 활약이 두드러진 삼중주곡 가단조를 작곡, 이듬해 1월에 완성합니다.

곡이 시작되면 곧 애절한 선율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몰입해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두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두 악장 중 1악장은 슬픔 가득한 비가(悲歌, 엘레지), 2악장의 1부는 주제와 11개의 변주, 2부는 마지막 변주와 코다(coda)로 이루어졌습니다. 1악장이 감상자의 눈물을 뺄 정도로 슬픈 분위기라면, 2악장의 1부는 루빈스타인과 함께 보낸 행복한 시절을 연상하며 쓴 부분인지라, 서정적인 주제에 이은 11개의 변주가 때때로 노래하고 춤추는 등 부드럽고 가벼운 편입니다. 그러다 2부의 마지막 변주는 슬픔을 이겨내고 재도약하듯이 거침없고 힘차게 연주되죠. 마지막 코다(coda)에 이르러서는 1악장의 주제가 다시 나오면서 애도의 분위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마음을 정리하고 영원한 안식을 빌듯 조용히 끝맺습니다.

지난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북동부 폭격으로 차이콥스키의 트로스타네츠(Trostyanets) 별장이 파괴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부계(父系)는 우크라이나 혈통, 여동생은 우크라이나에 거주했고, 종종 우크라이나에서 휴가를 보내며 이 지역의 민요 선율을 작품에 사용했던 차이콥스키는 분명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가장 슬퍼할 사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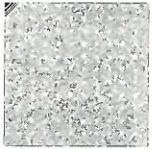
차이콥스키 <피아노 삼중주곡 가단조 op.50>

피아노: S. 리히테르

바이올린: O. 카간

첼로: N. 구트만

(1986년 공연 실황)



삼위일체를 말하는 산비탈레 성당

김광현 안드레아 |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4세기 아리우스파는 성부만이 시작이 없이 영원하고, 성자는 모든 피조물처럼 창조되어 태어났을 뿐이라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했습니다. 이에 교회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파를 단죄하고 니케아 신경으로 삼위일체의 신앙을 반포했으며,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는 이를 확대하여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리우스파는 동고트 왕국을 세우고 이탈리아를 지배하며 수도 라벤나에 그들의 중요한 성당들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동고트 왕국이 약해지자 동고트 왕국의 황제 테오도리크가 죽기 1년 전인 525년에 산비탈레 성당(Basilica of San Vitale)을 짓기 시작했고, 548년에 비로소 완공되었습니다. 건축으로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명확히 한 성당, 그것이 바로 산비탈레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증명하려는 듯 ‘3개’라는 모티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보면 돔 지붕의 아래에 두 층으로 된 아케이드가 서 있어서 전체는 세 개의 층으로 나뉩니다. 위아래에서 반원을 이루는 아케이드는 3개의 아치로 다시 나뉩니다. 그러나 이 3개의 아치와 아케이드는 더 큰 아치 아래에서 결합합니다. 이렇듯 삼위일체의 하느님은 나뉘지 않는 한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평면을 보면 8각형의 회중석, 그것을 에워싸는 7개 아케이드의 반원 공간, 또다시 그것을 바깥쪽에서 두르고 있는 주보랑 등 세 요소가 중심을 같이하며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제단은 길게 주보랑을 관통합니다. 그러나 주보랑은 제단으로 열려 있고 제단은 회중석에 접하고 있습니다. 제단 좌우에는 제의와 성경을 보관하는 방과,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방을 두었는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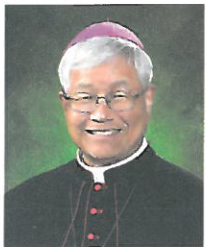


산비탈레 성당(Basilica of San Vitale)

는 성소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하나가 다른 둘에 포함되어 있다는 삼위일체의 상호내주(相互內住 perichoresis)를 이렇게 건물로 나타냈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면은 8각형인데 벽마다 세 개의 창문을 두었습니다. 이 창에서 들어온 빛은 하나가 되어 주보랑 위를 비추지만, 다시 세 개의 아치로 나뉩니다. 그러나 이 빛은 하나가 되어 성당 안 전체를 부드럽게 지배하며 내부의 모자이크를 아름답게 비춥니다. 제단 옆 북쪽 벽에는 세 명의 남자(천사)가 식탁에 앉아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는 삼위일체 모자이크가, 남쪽 벽에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단에 바쳐지는 아벨과 멜키체덱의 희생을 성부의 손이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모자이크가 빛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비탈레 성당은 벽, 기둥, 창, 지붕이라는 건축 요소와 빛으로 아리우스파의 논란을 종식하고 삼위일체 하느님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요한 14.11)는 말씀대로 세 위격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의 실체이신 하느님이심을 1,500년 동안 세상을 향해 이렇게 힘차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유흥식 대주교, 추기경에 임명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지난 5월 29일 (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부활삼중기도 후,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를 포함한 21명의 고위 성직자를 추기경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새 추기경 서임은 오는 8월 27일 토요일에 있을 추기경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유흥식 대주교는 2021년 6월 11일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된 지 약 11개월 만에 추기경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교구청알림

'슬픔 속 희망찾기' 월레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매일 세번째(토) 6월18일 10시(목주기도), 10시 30분(유가족 미사)
 곳: 명동대성당 옆 영성센터 경당(상설고해소 건물)
 문의: 02)727-2495 한미음혼문자살예방센터

순교자현양회 합창단원 모집

대상: 음악을 좋아하는 교우, 성가대 및 합창단 경험자(62세 이하)
 활동: 순교자현양회와 시복시성기원 미사(월 2회), 행사 성가봉사, 정기연주회 등
 연습: 매주(월) 오후 7시,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문의: 010-3898-3408 단장, 02)727-2527 사무국

한국평협 어머니아버지 학교 온라인 강의

대상: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및 조부모
 때: 6월24일~7월15일 매주(금) 19시30분~21시(4주간)
 강사: 조재연 신부(햇살사목센터)
 회비: 4만원 / 계좌: 신한 140-006-356390 청소년의햇살 햇살사목센터 · 한국평협 홈페이지 6월20일(월)까지 접수
 문의: 02)744-0840 햇살사목센터

홍보위원회 특강 안내

강좌 신청: 네이버카페 '가톨릭예술아카데미' (<https://cafe.naver.com/catholicartstory>)

1) 시와 문학으로 만나는 하느님 / 문의: 02)751-4103

대상: 신자 및 일반인(선착순 100명)
 때, 곳: 6월14일~7월5일 매주(화) 14시~15시30분, 교구청 501호 / 회비: 8만원(본인 부담 4만원, 교구 지원 4만원)

6월14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가치, 사랑	정호승 시인
6월21일	우리를 살게하는 힘, 영성과 문학	최대환 신부
6월28일	예고 실례를 사랑한다면, 한번쯤은 케스크로모프	김재선 시인
7월5일	나의 연인이 되기 위해 오늘 나는 땀을 흘려야 한다	신달자 시인

2) 신앙의 기쁨을 찾는 길 / 문의: 02)751-4105

대상: 신자 및 일반인(선착순 100명)
 때, 곳: 6월16일~7월7일 매주(목) 14시~15시30분, 교구청 501호 / 회비: 8만원(본인 부담 4만원, 교구 지원 4만원)

6월16일	교회사술을 통해 전례를 더욱 풍성하게	정종민 신부
6월23일	빛의 창조 공간, 고딕 양식	김진태 신부
6월30일	신앙의 기쁨을 찾는 길 '저자께 지나서 큰 나무 되듯이'	손희홍 주교
7월7일	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허영립 신부

I. 위원회 명칭 변경

'시복시성준비위원회'의 명칭을 '시복시성위원회'로 변경합니다.

II. 시복시성위원회 위원 추가 임명

임) 부위원장 박선용(요셉) 신부 (문정동 본당 주임)
 총 무 장후남(글라라)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79년 6월 15일 윤형중 마태오 신부(76세)
- 2008년 6월 13일 나상조 아우구스티노 신부(87세)
- 2010년 6월 15일 조순창 가시미로 신부(77세)
- 2010년 6월 17일 박대웅 세례자요한 신부(57세)
- 2021년 6월 19일 신광호 베드로 신부(44세)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선종훈 개인전: 전관
 전시일정: 6월15일(수)~20일(월)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때, 곳: 6월13일(월) 10시30분, 길음동성당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서울대교구 화상수업

주제: 자존감 되찾기 / 교육 지도: 문종원 신부
 때: 6월24일~9월23일 매주(금) 오후 8시~9시
 문의: 010-6224-2920 강명인

민족화해위원회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 복녘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322차 미사 6월14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본당: 함흥교구 계림 · 화령 · 나진옹기 본당
 미사후에는 한반도 평화와 복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2) 2022 평화의바람(독도 & DMZ국제청년평화순례)

대상: 평화에 관심 있는 20세~30세 젊은이 60명
 (내 · 외국인, 영어 가능자 우대) / 문의: 02)753-0815
 때, 곳: 8월16일~22일, 독도&경기 · 강원 DMZ일대
 회비: 10만원 / 6월24일까지 이메일 접수
 홈페이지(<http://caminjok.or.kr>) 참조

온라인 전례학교

1) 2022년 2차 온라인 전례학교(이론)

대상: 전례봉사자, 일반신자
 때: 7월1일(금)~8월31일(수) / 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
 주제: 전례 역사, 7성사, 전례 공간, 미사, 전례적 삶
 회비: 2만원 / 6월27일(월)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자세한 내용은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에서 확인 / 문의: 02)727-2066 사목국 교육지원팀
 2) 2022년 1차 온라인 전례학교(실기)

대상: 전례봉사자 / 주제: 해설 · 독서 및 제대 봉사
 때: 7월1일(금)~8월31일(수) / 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
 회비: 1만원 / 6월27일(월) 마감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자세한 내용은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에서 확인 / 문의: 02)727-2066 사목국 교육지원팀

사목국 직장사목팀

1) 명동 직장인 금요미사 안내

때: 매주(금) 12시15분
 곳: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2층 소성당
 문의: 02)727-2078 직장사목팀
 2) 직장사목팀 성가단 AESTUS CHOIR 단원 모집
 대상: 20~40대 직장인 가톨릭신자
 모집인원: 각 파트 00명
 연습 · 미사: 매주(금) 19시30분 · 둘째주(금) 20시,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2층 소성당
 문의: 010-5203-4355 단장, 010-5104-5644 부단장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2년 영성심리상담교육원 교육프로그램

모집과정: 온라인-2022년 영성심리 아카데미(영성 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독서모임, 피정 등), 대면-가톨릭영성심리 치유와 봉사 수료과정(기본과정) 상제안내 홈페이지 참조 / 02)727-2126(tcpc@seoul.catholic.kr)
 신청: 홈페이지(<http://seoulcpc.catholic.or.kr>) - 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8시) /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생명위원회

1) 2022년 청년 피정

주제: "성 · 생명 · 사랑의 길"
 대상: 1983년~2003년생 미혼 남녀
 때: 7월1일(금) 19시~3일(월) 15시(2박3일)
 곳: 명동대성당 내 영성센터 게스트하우스(1인 1실)
 주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 한국군스타
 문의: 02)727-2351 생명위원회 / 6월19일(일)까지 마감
 2) 6월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6월13일(월) 11시, 명동대성당 내 파밀리아채플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3)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 상처 치유 프로그램 및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6월14일 13시30분~16시30분 매일 두번째(화)
 곳: 서울대교구 교구청 별관 6층 소성당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인문단체 알림

모임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묵상 피정

때: 6월20일(월) 10시~13시 / 무료 피정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강의·미사: 김성중 신부
문의: 010-9620-4820 마리아학교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대침묵 피정

내용: 공동기도수행, 강의, 영적지도 / 문의: 02)990-1004
때, 곳: 6월24일~26일(2박3일)·7월12일~15일(3박4일), 명
상의 집(우이동) / 개인 피정(수시), 위탁 피정 별도 문의

서스문밖네거리순교성지 피정

주제: 가정성화 / 강사: 이형전 신부
때: 6월17일(금) 13시~16시(미사 포함) / 선착순 접수
곳: 성 정하상 기념경당 / 회비: 1만원(후원회원 7천원)
문의(접수): 02)3147-2402 성지 사무실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6월17일~20일·7월15일~18일·7월29일~8월
1일·8월12일~15일·8월26일~29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주최, 우수동)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지금여기의 자각을 통한 현존 영성수련 피정(예수회)

현존의 힘으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수
련합니다 / 계좌: 농협 301-0197-3172-01
때: 7월2일(토) 14시~3일(일) 15시
곳: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 / 회비: 7만원
문의(접수): 064)739-0951, 010-3884-0951(문자)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시간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분당 단체 구반장
때: 6월27일~29일, 7월3일~5일, 7월8일~10일, 7
월23일~25일, 7월31일~8월2일, 8월6일~9일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제주 현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
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자연순례(우도자유일정): 6월20일~22일, 7월21일
~23일, 7월30일~8월2일, 8월6일~9일, 8월12일
~15일, 8월20일~22일, 8월26일~28일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03차	6월17일(금)~25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104차	7월15일(금)~23일(토)	
제105차	8월12일(금)~20일(토)	

교육

수제 목주 전문반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캘리그래피 수강생 모집(가톨릭글씨문화연구회)

블로그: blog.naver.com/pc21s / 010-5313-6554(문자)

자유를 향한 내적여정(전교가르멜수녀회 영성의집)

덕행과 내적성장: 매주(목) 10시(비대면) / 010-4495-776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다함께 성가를’ 발성교실

평화방송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피나음악원(주최, 신촌) / 문의: 010-9842-8818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회비: 1만원 /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서강대 게임·평생교육원 이태리어·스페인어 강좌

2022년 여름학기 수강생 모집(7월~8월 진행)

개강: 7월4일·5일(8주 과정, 총 30시간)

접수: 6월1일(수)~30일(목) / 원어민을 포함한 우

수 강사진, 초급~고급반 단계별 맞춤형 교육

여행이나 순례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 환영

수도자는 수강료 10% 할인됩니다

문의: 02)705-8718(http://secc.sogang.ac.kr)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설명회·여름진학캠프

대상: 현 초6, 중1 / 문의: 054)338-0530

전입학설명회	7월2일(토) 14시
여름진학캠프	8월6일(토)~7일(일)

미국가톨릭사립학교 학생 모집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학교법인

정규입학	초5~고1 / 단기 1년 또는 장기
여름캠프	초4~중2 / 미국 4주·캐나다 2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음악아카데미

교육과정: 수시 모집

회비: 16만원(8주 기준) / 문의(접수): 해당 과목 강사

국악가·대금 소금 단소, 생활음악가·판소리 통기타 우쿨렐레 오카리나 아이리시틴휘슬	(목) 10시30분~12시30분, 15시~17시, 18시~20시	문의: 010-7930-2074
재즈피아노	(목) 19시~21시, (금) 10시~12시	문의: 010-7244-1312

예수회센터 여름방학 특강(7월 개강)

이 밖의 다양한 강좌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의식(양식) 성찰, 어떻게 할 것인가?	매주(화) 동영상 링크 발송(6주 과정)	권오면 신부
육화의 영성-일상을 살아가는 영성과 겸손	매주(금) 동영상 링크 발송(5주 과정)	손우배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미-구약성경 기초 입문	현장 강의: (화) 19시30분~21시(6주 과정) 동영상 녹화강의: 링크 발송	주원준 박사

음악심리상담사자격 초급 과정

때, 곳: 7월13일~27일 (수)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 (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 음악클래식기타회

새천년복음화학교 146기·93기 수료특강

때, 곳: 7월3일(일) 13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내용: 특강 및 미사 / 미사: 손희송 주교(서울대교구 총대리)
문의: 02)753-8785 새천년복음화학교

장례지도사 봉사자반 교육생 모집

때, 곳: 7월2일~9월17일 매주(토) 9시~18시, 의정
부교구청 내 신앙교육원 / 팩스: 031)837-0144
게시판(cafe.daum.net/c-sjr) 공지사항 참조 / 문의:
031)874-6272 의정부교구 연령회연합회·상장례학교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영성학교·성체성혈대축일 대피정

문의: 02)773-3030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1) 영성학교

때: 6월15일~7월6일 (수) 14시~16시 / 강사: 백남일
신부, 원성묵 신부, 김창훈 신부, 홍성만 신부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 회비: 4만원

2) 성체성혈대축일 대피정(교구장과 함께하는 피정)

강사: 교구장, 나종진 신부(사목국)

미사집전: 교구장과 지도 사제단

때, 곳: 6월20일(월) 13시, 명동대성당

모임

개포동성당 쉼터 오케스트라 전공자 모집(순수봉사)

접수: cafe.daum.net/caelumorch / 010-3590-8315

명동대성당 가톨릭여성합창단 신입 단원모집

대상: 만20세~53세 이하 가톨릭신자 및 예비신자 여성
오디션: 6월26일(일) 13시 / 문의(문자): 010-8788-4781

우니타스 엔젤스 합창단원 추가 모집 / 문의: 02)753-0815

노래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어린이 합창단원
을 모집합니다 / 오디션: 자유곡 1곡
연습: 매주(토) 10시~13시, 교구청(명동) 별관 6
층 소성당 / 대상: 초2~초5(종교 무관, 수시 모집)

가톨릭 남성 합창단 올바우 단원 모집

45년 전통의 가톨릭 남성 합창단 올바우에서 단
원을 모집합니다 / 문의: 010-5107-9525 부단장
대상: 성가대 유경험자 우대 입단 오디션

때: 매주(월) 19시30분~21시30분

곳: 가톨릭 성음악 아카데미(중림동)

미사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6월28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들꽃마을 서울 영성강의 및 미사

지도: 최영배 신부(들꽃마을) / 문의: 054)955-4133
때, 곳: 6월14일(화) 14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살레시오와 꿈 월레미사

지도: 심재현 신부 / 문의: 02)828-3500

때, 곳: 6월13일(월)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3호

글라셋선교수도회 서울후원회 월레미사

내용: 묵주기도, 미사 / 문의: 02)743-7026, 010-6667-3001

때, 곳: 6월20일(월) 11시, 글라셋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군중후원회 월레미사 / 문의: 02)776-0457

군중신부 특강 및 군 복무중인 청년과 회원을 위한 미사

때, 곳: 6월13일(월) 14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절두산순교성지 마리아연령회 미사 / 문의: 02)3142-4434

때, 곳: 6월24일(금) 11시30분, 전철 2·6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내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연도 및 미사

인내

성안드레아 피정의집 여름프로그램

초·중·고·청년 위탁 CAMP 및 자체 모임(수영장 구비)

때: 7월18일~8월21일 / 문의(접수): 032)465-0835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여성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전화상담 가능)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영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 및

가족 치료, 개인(우울·공황·불노·강박) 종합심리검사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플자비외수녀회)

인천교구 송도2동성당 신축 현상설계 공고

등록: 6월4일(토)~14일(화) / 설명: 6월18일(토) 14시

입찰: 8월27일(토) / 발표: 9월3일(토)

송도2동성당 카페(<https://cafe.naver.com/lee2118>)

참조 / 문의: 032)858-9960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scen.or.kr

아동·청소년·성인 진로적성검사: 다중지능검사·자기조

절학습검사·인성검사·그림검사, 강점지능을 통한 진

로 탐색, 대인지능을 통한 사회성 훈련 및 관계 회복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caec.or.kr)

삼양동 선교본당 재활용매장 '살림'

의류·가방·신발·생활용품·가전제품을 기증 받은

재활용 사업을 통해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기증 수거방문 기준: 2상자 이상 / 문의: 010-5751-3978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리조트)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유판단지 알림

다슬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장애, 부부, 진로,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골롬반회, 심리학박사)

문의: 010-9146-7654(www.dstcoun.net)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가톨릭회관 501호

개인 상담 정서 및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 성

인 및 심한 우울과 불안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교육 미술심리치료상담사 자격과정: 6월23일~8월25일

(목) 오전 10시~13시·오후 18시~21시(10주)

직원모집

서울성심간병인회 남녀 간병사 수시 모집

곳: 서울삼성, 서울성모, 여의도성모, 은평성모병원

근무내용: 환자에게 간병 제공(24시간 병원 상주) / 1522-9415

성서와함께 업무부 직원 모집

업무: 제품관리 및 배송 / 엑셀 가능, 운전면허 1종

1차 서류 전형(이력서·자기소개서), 2차 면접(개별 연락)

6월30일까지 이메일(pen@withbible.com) 접수(제

목: 입사지원_이름)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3040-7518

요양보호사 / 주 40시간 3교대, 기숙사 가능

가톨릭여성연합회 직원 모집

분야: 사무직 1명(계약직) / 주5일 근무

대상: 가톨릭 신자로 PC(한글·엑셀 등) 사용 기능자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에서 다운), 교적 사본 1부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후 개별 연락

6월30일(목)까지 이메일(womenorg@catholic.or.kr) 접수

신정3동성당 주방근무자(계약직)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경력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

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 02)2060-8051

채용시까지 방문·우편(우 0805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7길

60-10)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아현동성당 사무원 모집

분야: 사무원 1명(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PC 사용

및 회계업무 가능한 분 / 문의: 02)365-3184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

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6월22일(수)까지 방문·우편(우 03757,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로4가길 17, 사무실) 및 이메일(ahyon@catholic.or.kr)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주방근무자·세탁근무

자 각 0명(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

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

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 7월3일

(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

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세검정성당 시설관리 직원 모집

분야: 시설관리인(계약직 1명) / 문의: 02)3217-9595

업무: 시설물 관리, 방호, 미화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시설관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

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6월15일(수)까지 팩스(02-3217-9200)·이메일(khly88@naver.com) 및 우편·방문(우 03018, 서울시 종로구 세검

정로6길 38)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거룩한 열정의 딸 수도회	6월19일(일) 15시	본원(사당동)	010-5920-6367 기 헬레나 수녀
성령 선교 수녀회	6월18일(토)	본원(명륜동)	010-2691-4895 하루 수녀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수시	본원(경기도 남양주시)	010-4241-1210 성소 담당자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6월26일(일) 9시	서울 본원(장충동)	010-8353-2323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6월19일(일) 13시30분~17시	본원(미아리)	010-9816-0072
예수 고난회	6월26일(일) 11시~15시	수도원(돈암동)	010-6804-4904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신학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6월18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한국외방선교회	7월3일(일)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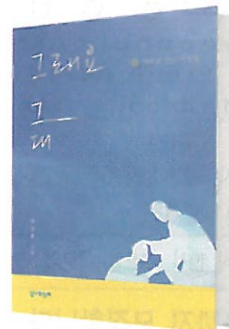


신간

축복받은 성경 읽기 루카복음서 요한복음서

가톨릭성서모임 지음
성서와 함께 | 각 88쪽 | 각 4천원
문의: 02)822-0125

성경 본문을 충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쉬운 문제집' 낱권 시리즈이다. 별다른 주석이나 해설서가 없어도 성경만 보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을 수록했고 말씀의 봉사자나 지도자가 없어도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단순한 구성으로 개인 혹은 단체에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신간

그래요 그대

한상봉 지음
성서와 함께 | 500쪽 | 2만5천원
문의: 02)822-0125

이 장편소설은 '요아스의 아들, 요셉'부터 '마리아 막달레나'까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다. 각각의 인물에 대한 기존 지식에, 저자의 상상력이 더해져 독특하고도 새로운 재미를 선사한다. 또한 인물들의 삶의 궤적과 심리를 개연성 있게 묘사함으로써 그들 삶의 이야기에 집중하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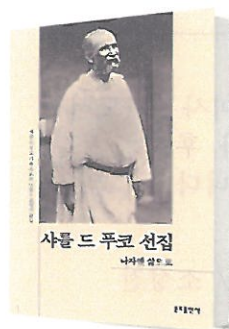


신간

혼돈의 글로벌 시대, 공동체주의를 말하다

최영종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427쪽 | 2만원
문의: 02)740-9718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신냉전'이라는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 글로벌 시대, 위기를 돌파할 해법은 무엇인가? 이 책은 '공동체주의' 이론을 글로벌, 지역, 국가 차원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평화, 국가 공동체의 성숙 등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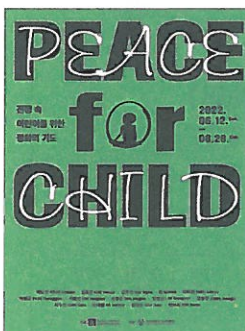


신간

샤를 드 푸코 선집 나자렛 삶으로

샤를 드 푸코 지음
분도출판사 | 216쪽 | 1만8천원
문의: 02)2266-3605

샤를 드 푸코(1858-1916)의 시성(詩聖)을 맞아 나온 이 선집은 그가 남긴 영적 기록과 편지를 검손, 자비, 광야, 고독, 노동 등 열다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 소개한다. 독자들은 여기 모아 놓은 글 속에서 그의 큰 특징인 불꽃 같은 사도적 열정을 암시하는 수많은 구절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전시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특별기획전 PEACE for CHILD

무료전시/9시30분~17시30분(화~주일, 월요일휴관)
문의: 02)3147-2401
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 순교자헌양위원회
주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상반기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특별기획전 「PEACE for CHILD: 전쟁 속 어린이를 위한 평화의 기도」가 6월 12일(주일)~8월 28일(주일)까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된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생명인 어린이의 인권을 돌아보며 '전쟁', '인권', 그리고 '어린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현대미술의 다양한 조형 언어로 풀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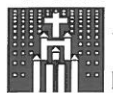
공연

서울시합창단 쁘띠 콘서트-가곡시대

입장권: 전석 3만원 / 문의: 02)399-1000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2명 20% 할인(학
생할인: 초, 중, 고 50%, 대학, 대학원생 20% 할인)

작다는 뜻의 프랑스어 '쁘띠(Petit)'를 담은 <쁘띠 콘서트>는 서울시합창단이 2019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매년 가곡, 오페라 아리아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합창단원들의 솔리스트 기량을 선보이는 예술 무대로 올해는 시(詩)를 주제로 한 우리 가곡으로 프로그램을 꾸렸다. 오는 6월 14일(화)~15일(수) 19시 30분, 세종체임버홀에서 공연한다.

제2233(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진주교연회동상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명국(비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예비신자는 7월 10일(주일)까지 모집합니다.

교리반	교리 시작 날짜	장소
수요반	6월 8일(수) 오후 8시~	교육관
주일반	6월 12일(주일) 오전 9시~	304호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4/27~5/29).

성 명	세 례 명	구역/반
송연주	올리바	1-1
한정희	세레나	2-4
박제연	힐데가르다	3-3

◎ 전입교우 환영식

일시 : 6월 12일(주일) 교중미사 후 도서실

※ 매월 둘째 주일 교중미사 후
전입교우 환영식이 있습니다.

◎ 여성구반장 회합

일시 : 6월 12일(주일) 12시 / 소성전

◎ 남성올드레아

일시 : 6월 19일(주일) 교중미사 후 301호

◎ 성소후원회 미사 : 6월 21일(화)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회원분들 회비는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병자영성체 : 6월 23일(목) 10시 미사 후

◎ 6월 24일(금)은 사제성화의 날입니다.
신부님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구행사로 6월 24일(금) 오전 10시 미사는
없습니다.

◎ 예수성심성월 맞이 청년 활동

- 6월 18일 봉사활동 (오전 5시 20분 / 서교동성당)

- 6월 26일 성체조배 (청년 미사 후 / 대성전)

※ 자율참석이고, 봉사활동의 경우 '비단체 청년'은
사무실 ☎ 02-323-4450)에 문의바랍니다.

◎ 청년 이레밴드 단원 모집

모집파트 : 보컬(남/여), 건반, 드럼 등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3시

열린미사 : 매월 마지막주 주일 오후 6시

문의 : 스테파노 단장 (010-2829-3856)

※ 열린미사는 밴드찬양을 통해 봉헌하는
청년미사입니다.◎ 오늘은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6. 5)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098	800 (38.1%)	746 (35.6%)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유지보수기금 (2022년)

누 계 34,206,100원

◎ 연령회 감사헌금

고 이준행 루파나 상가 오십만원

◎ 감사헌금 (5월 30일~6월 5일)

김미화 이십만원 홍동수 오만원

익 명 오십만원 익 명 일십만원

이영주안젤라 오만원

◎ 우리들의 정성(성령 강림 대축일)

교무금 13,365,000원

주일헌금 5,167,000원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헌금 1,869,000원

입당	81	봉헌	210, 212	성체	183, 175	파견	77
----	----	----	----------	----	----------	----	----



주 - 너 저 희 주 너 온 땅 에 당 신 이 름 이 얼마나 크 시 읍 니 까